

본당 소식

♣ 말씀 KEY WORD

- '어린양'(암노스) : 요한 복음은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 당하신 어린양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마치 이 세상의 어머니들이 그러하듯, 예수님은 인간, 그 하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을 온전히 내어놓으신 '하느님의 어린양'이십니다.

♣ 2025년 총 수입/지출 보고

- 23년 이월분 : 7,724.08 유로
- 24년 이월분 : 3,292.85 유로
- 총수입 : 33,419.22 유로
- 총지출 : 42,602.74 유로
- 총잔액 : 1,833.41 유로

♣ 2025년 교무금 결산

- 총납부액 : 12,000 유로
- 미납액 : 200 유로

- 한 해동안 교무금을 납부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미납된 교무금은 완납해주시고 내년도 교무금도 담당자 (정클라라 자매님)를 통해 책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2월 1일 주님 봉헌 축일 초 축복 예식 안내

- 초 신청 : 제대초 및 개인초
- 제대초(성당에 봉헌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 : 15유로 (사이즈 이전과 동일)
- 개인용 : 10유로 (제대용 사이즈의 약 1/2)
- 신청 마감 및 입금 : 1/18(주일)
- 접수 :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1월 18일(오늘)까지 접수 및 비용 취합하시어 총무님께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새해 맞이 대청소

- 1월 25일 (주일), 미사 후

♣회의 / 모임

- 성모회 회의 : 금일 미사 후, 오라토리오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25.80€ • 교무금 1,116.00€

전례 봉사

이번 주일(1월 18일)	다음 주일(1월 25일)
1독서: 서인복 리노	1독서: 박건욱 레오
2독서: 류정연 릿타	2독서: 이소현 엠마
복 사: 강윤아 헬레나 / 강윤이 스텔라	복 사: 정아인 레나 / 변가인 헬레나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 총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정상현 안토니오 ·총무: 박건욱 레오
-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6년 1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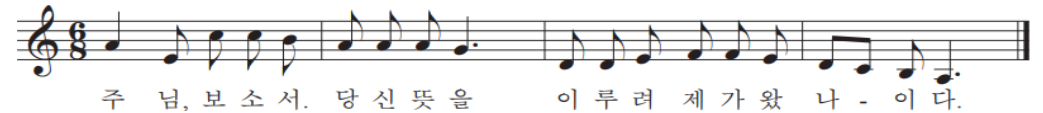
(녹) 연중 제2주일(일치 주간)

미사 전례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어 이 시대에 하느님의 평화를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굶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

제1독서 (이사야서 49,3.5-6)

주님께서 3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5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6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1-3)

1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오로와 소스테네스 형제가
2 코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3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

복음 (요한 1,29-34)

그때에 29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30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31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32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33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34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치의 주님,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시작하는 교회를 살피시어,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는 이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세상 구원을 위하여 힘을 모으게 하소서.

2.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창조의 주님, 기후 위기 속에 갖가지 재해를 겪고 있는 이 나라를 살피시어, 지구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3. 냉담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냉담 교우들을 보살피 주시어, 그들이 주님께서 늘 함께하심을 느끼
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풍요로움을 다시 발견할 수 있게 하소서.

4.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이웃하여 지내는 저희 지역의 모든 이를 이끌어 주시어, 사회 경제
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찾아 도움을 주며 사랑과 희망을 전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저희가 천상 양식을 함께 나누고 비오니

사랑의 성령을 부어 주시어

그 사랑으로 한마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전례 성가

입당 : 39 (하나되게 하소서)

봉헌 : 514 (주여 대령했나이다)

성체 : 153 (오소서 주 예수여)

154 (주여 어서 오소서)

파견 : 46 (사랑의 송가)